

정의선 “외부의 위기, 기본기 바탕으로 기회 만들어 달라”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

“앞으로 피할수 없는 도전 기다려
낙관적·비관적 태도에 경계해야”

“핵심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쟁자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만큼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2025년 신년회를 통해 “외부 위기에 위축되기보다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 중심에는 임직원간 소통을 통한 혁신과 고객 중심의 가치실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날 신년회 장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가 아닌 일선 현장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남양연구소, 2024년 기아 오토랜드 광명, 2025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등 최근 3년 연속 현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우리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고객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미래 세대를 이끌 어린세대에게 우리 비전을 보여주고 함께 꿈꾸길 바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6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2025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송창현 사장, 성 김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이규복 사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사장, 현대건설 이한우 부사장 등 그룹 경영진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임직원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회장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변화와 혁신, 위기극복 DNA를 강조했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면밀한 준비와 유연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 회장은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도

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낙관에 사로잡히거나 비관적 태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위기가 없으면 낙관에 사로잡혀 안이해지고,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면밀한 준비로 미래 기회 창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대응을 위

한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속도는 내부 결정 속도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안전, 고객 만족에 더 충실한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생각한다”며 “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실제로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초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한 것과 관련, 정 회장은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사장단인사에서 장재훈 사장을 완성차담당 부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5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에, 호세 무뇨스 사장을 현대차 신임 대표이사에, 성 김 고문역을 그룹 전략 기획 담당 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내부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그룹사 대표이사와 주요 직책에 배치했다.

정 회장은 “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는 조직 내부를 넘어 외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한다”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CES서 ‘AI 혁신금융’ 선보인다

신한은행, 부스 ‘AI 브랜치’ 재현
홀로그램 은행원이 상담 등 진행
기업은행, IBK BOX 등 콘텐츠
통합한국관에 ‘IBK창공관’ 마련

금융권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5’에 참석한다.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업무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어 ‘CES 2025’를 통해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참석한다.

CES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 종사자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신한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CES 부스를 꾸린다.

지난 2022년 금융권 최초로 CES에 참가한 신한은행은 3년 연속 세계 무대에서 IT 경쟁력을 선보이게 됐다.

신한은행 CES 부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소문에 개소한 ‘AI 브랜치’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AI 브랜치’는 기존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영업점이다. AI 브랜치에 도입된 AI 은행원은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대화로 자연스럽게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개최된 ‘CES 2024’에 마련된 신한은행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신한은행

할 수 있다.

올해 CES에서는 ‘AI 브랜치’에서 테스트 중인 홀로그램 AI 은행원이 등장해 가상의 상담과 인출 서비스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한다.

단독 부스에서는 AI와 금융의 융합으로 고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모형, IBK BOX, i-ONE Bank 등을 비롯해 기업은행이 투자·육성한 기업들의 영상,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을 통해 선발한 8개 스타트업의 ‘CES 2025’ 참가 지원을 위해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 통합한국관에 ‘IBK창공관’도 마련한다.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은행은 2

곳에 불과하지만 금융지주들은 참관단을 꾸려 CES 2025를 찾는다.

KB금융은 매년 CES에 참가한 최재홍 사외이사(가천대 창업대학 교수)가 지주와 계열사 실무직원 20여 명과 현장을 찾는다.

우리금융은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과 계열사 IT·AI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꾸렸고, 농협금융은 지주사 6명, 농협은행 5명 등 소수의 실무 담당자를 파견한다.

하나금융의 경우는 그룹 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는 CES 참관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이 CES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빅블러 시대에서 글로벌 신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中, 리튬 추출기술 수출규제 강화나서

韓, 밸류체인 다각화 의존도 타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에 분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과 핵심 광물인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배터리 소재 공급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밸류체인 다각화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갈륨 추출을 위한 기술 공정을 수출 금지 및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출 통제 대상이 흑연에서 양극재 및 리튬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4년 12월 대중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반도체 수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이튿날 미국에 대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표 또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 제조와 핵심 광물 공정 기술의 수출 제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배터리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음극에 국한됐던 수출 제한이 양극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기업들 또한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배터리업계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양극재의 중간·기초 소재를 경쟁 상대방인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의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필리핀을 인수하고 양극재 제조용 수산화리튬 2만톤 구매·공급계약을 체결을 체결했다. 또한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가부터 고가 전기차용 양극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